

Monthly

Aulos news

월간 아울로스 뉴스 | October 2006

낙소스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 선정'

Naxos new release

8.570239



파트:
무반주합창곡집
(Tridion,
I am the True Vine,
Nunc dimittis etc)

엘로라 페스티벌 싱어즈
노엘 에디슨

'파시오'와 '베를린미사'에 이어 낙소스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또 하나의 파트 종교합창곡. 이미 '베를린 미사'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엘로라 페스티벌 싱어즈의 순정의 앙상블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한다. 수록곡들은 모두 90년대 중반이후에 완성된 비교적 신작들. 작은 종소리를 의미하는 작곡가 특유의 음악 표현법인 '틴티나블리'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소노리티와 교회선법에 뿌리를 둔 신비로운 선율이 크나큰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8.570263



모차르트:
'8살의 모차르트'
(건반과 플루트를 위한
소나타 K10-15)

캐럴 윈센크, 플루트
지나 랍스, 피아노

1764년 8살의 모차르트는 런던으로 연주여행을 떠났다. 음반에 수록된 여섯 소나타는 그 기간 중에 완성되어 이듬해 출판된 것들. 솔로파트는 바이올린 또는 플루트로 연주가 가능하며, 반주의 수준을 넘어서는 주도적인 건반파트가 덧붙여진 작품들이다. 당시 영국에서 활약했던 JS 바흐의 막내아들 요한 크리스티안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지는 편이나, 어린 신동의 조숙한 음악적 재능이 이때부터 이미 한껏 물이 올랐음을 쉽게 확인하게 된다.

8.570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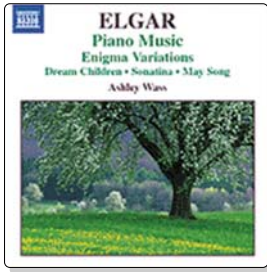


쇼스타코비치:
피아노소나타 2번,
맑은 시내,
어린이의 연습장,
5 전주곡, 3개의 소품

콘스탄틴 세르바코프, 피아노

작곡가의 탄생 100주년에 걸맞은 주목할 만한 신보가 등장하였다. 낙소스의 간판 피아니스트로 급부상한 콘스탄틴 세르바코프가 전성기간 중의 작품인 피아노소나타 2번과 가벼운 성격의 피아노소품들을 녹음하였다. '어린이 연습장'은 작곡가가 자신의 딸 갈리나를 위해 작곡한 사랑스러운 소품들. 발레 '맑은 시내'의 작곡가 자신의 피아노편곡은 이번엔 최초로 녹음되는 것이다.

8.570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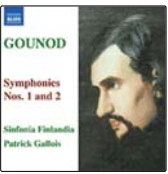


엘가:
피아노음악
(수수께끼변주곡,
드림차일드, 소나티나,
카리시마, 5월 노래 etc)

애슐리 와스, 피아노

엘가의 대표작인 '수수께끼변주곡'을 작곡가 자신의 피아노편곡 버전으로 감상하는 재미가 색다르다. 조카딸을 위해 작곡한 매력적인 소나티나, 작곡가의 가장 서정적인 작품들 중 하나인 '드림차일드' 등 그동안 쉽게 발견하기 힘들었던 엘가의 또 다른 일면을 이 음반을 통해 만나게 된다. 백스 등의 영국 근대 작곡가들의 음반들로 큰 성공을 거둔 애슐리 와스가 연주를 맡았다.

8.557463



구노:
교향곡 1번,
교향곡 2번
신트리아 핀란디아
패트릭 갈로아

8.557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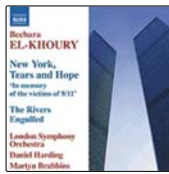
슈만:
현악사중주 1,3번
(스트링오케스트라를 위한
판곡)
몬트루엘 플레이어즈
장 필립 트렐블레

8.559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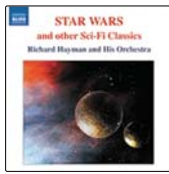
아담스:
바이올린협주곡
코릴리아노:
레드바이올린 중 사본느 외
클로에 한슬림, 바이올린
로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레너드 슬라트킨

8.570134



엘-니뇨:
뉴욕, 눈물과 희망,
바이올린 6중주, 돌길,
잃어버린 단편, 실려진 강들
히데키 나가노,
디미트리 바실라키스, pf/
런던 심포니
다니엘 하딩
마틴 브라운스

8.555020



존 윌리엄스:
스타워즈, 클로스 안카운터, 풀
드스미스: 에이리언
로제탈: 메테오
리처드: 베를스타 갈락티카
리처드 헤이먼과
그의 오케스트라

8.557864



필립스:
하프시코드 작품집
(판타지아, 파반느,
갈리아드, 파사메초 외)
엘리자베스 파, 하프시코드

8.570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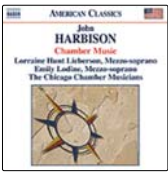
히나스테라:
기타 소나타
로드리고:
3개의 스페인소품
파야: 드뷔시의 무덤
헤투: 모음곡 외
제루 두아르테, 기타

8.5576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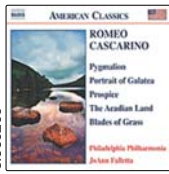
릴번:
섬의 노래, 생일선들, 숲,
드라이아데일 사곡,
아오테아로아 사곡,
축전사곡, 행진곡
뉴질랜드 심포니
제임스 저드

8.559188



하비슨:
실내악작품집
(남과 북, 여섯 미국 화가들,
세 현자, 시간과 계절의 책)
로레인 헛트 리버슨 &
에밀리 로빈, 메조
사카고 챔버뮤지션

8.559266



게스카리노:
피그말리온,
갈라테아의 초상, 유리달,
명상곡과 엘레지,
아카디아 외
필라델피아 필하모니아
조안 팔레타

8.559288



우리넨:
현악육중주, 현악사중주 2번,
디베르티멘토, 피아노오중주
타시 앙상블
더 그룹 포 컨템포러리 뮤직
링컨센터 챔버뮤지션
소사이어티

8.660196-97



사카니:
콜로네의 오에디페
프랑수와 루, 오에디페
나탈리 파울린, 안티고네
로베르 게셀, 클리테
오페라 리파레트 오케스트라
리안 브라운

2 CD SET



New Age
미국 뉴에이지의 시인 로빈 스피버그

Artist of Kirkelig
노르웨이 베이스 연주자 아릴 안데르센

Cover Story

20세기 위대한 독일 소프라노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

20세기의 위대한 독일 소프라노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 Elisabeth Schwarzkopf 1915~2006

20세기 최고의 소프라노 가수 중의 한 사람인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는 1915년 12월 9일, 폴란드 중서부 포츠나인(Poznan) 근처의 야로친(Jarotschin)이란 곳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선생은 리트 가수인 룰라 미슈-그마이너와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마리아 이보킨, 그리고 나중에 이보킨의 남편이 되었던 피아니스트 미하엘 라우하이젠(Michael Raucheisen)이었다. 슈바르츠코프는 원래는 알토 성부를 노래하다가 이보킨한테 배우면서 소프라노로 전향했고, 노래도 기초부터 다시 배웠다. 그러니까 그녀는 처음부터 두 명의 각기 다른 가수 선생한테 배움으로써 콘서트 무대에서의 리트와 오페라 무대에서의 아리아를 동시에 부를 수 있는 조건을 얻었던 것이다. 1938년에 베를린 시립 오페라에서 <파르지팔>의 꽃의 요정으로 데뷔했던 슈바르츠코프는 1942년에는 빈에서 열린 독일 리트 리사이틀에서 지휘자 카를 뵘의 눈에 들어 곧 빈 국립 오페라의 멤버가 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빈뿐만 아니라 잘츠부르크, 바이로이트 등의 유명 음악제에서도 활약하면서 카라얀과 함께 활동하는 일이 많아졌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노래할 때쯤에는, 비록 여전히 이탈리아 오페라를 많이 불렀지만, 모차르트 가수로서의 명성이 더 높았다.



1947년에는 영국의 코벤트 가든 왕립 오페라 극장에 데뷔했는데, 이때 그녀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의 엘비라 역으로 크게 주목 받았고, 빈 국립 오페라와 함께 최초로 영국 무대에 서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 후 그녀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의 한사람으로 부각되었다. 이 시기에 그녀는 유명한 EMI 레코드 기획자이며 프로듀서인 월터 레그(Walter Legge)와 결혼하고 많은 레코드를 남기기 시작했다. 이때 그녀가 맡은 오페라 역할은 그야말로 화려함 자체였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서 백작 부인 역, <돈

조반니>에서 엘비라 역, <코지 판 투테>의 피오르딜리지 역, 그리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장미의 기사>에서는 마르살린 역까지 완벽하게 소화하였다. 그녀의 배역은 그 폭이 넓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한정된 배역에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했고, 그 배역으로 결국은 최고의 명성을 얻었다. 그녀의 음성은 약간 비음이 섞여 있는 듯한 특징을 보였지만, 밝고 화사하며 우아하고 유연해서 초기에는 경오페라 역할에 자주 픽업되었다. 하지만 점차 비중 있는 배역에 도전했고, 그래서 <피가로의 결혼>에서 즐겨 부르던 수잔나 역도 그만 두고 백작 부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독일 가곡, 즉 리트 가수로서도 그녀는 뛰어난 역량을 보여 전후 최고의 리트 가수로 칭송받았다. 전후에 그녀는 피셔-디스카우와 자음이였다. 피셔-디스카우가 남성 성악가들 가운데 가장 빛나는 가수였다면, 여성 성악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가수는 슈바르츠코프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가 중요한 음악 센터에서 가곡 리사이틀을 연다고 하면 애호가들은 그것을 한해 내내 그렇게 열성적으로 기다렸다가 참석하곤 했다. 그녀가 콘서트 레퍼토리에서 부른 것은 독일 가곡만이 아니었다. 바흐의 수난곡 아리아, 헨델과 하이드의 오라토리오, 베토벤의 합창작품들, 그리고 베르디 심지어 티페트의 '우리 시대의 아이' 까지 불렀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명성 뒤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따라다녔다. 나치 시대를 겪어온 많은 예술가들의 경우처럼, 그녀의 이름도 나치에 협력한 예술가 명단에 끼어 있었다. 그녀의 명성이 너무도 화려했기 때문에 명단 속의 이름이 특히 돋보였다. 1982년 뉴욕 타임스는 나치 치하의 음악가들의 행적을 폭로하면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백작부인을 '나치의 여신'으로 전락시켰다. 영국의 한 평론가도 자신이 쓴 슈바르츠코프 전기에서 그녀를 베를린 음악학교 재학시절 나치 학생연합의 간부로 일했는가 하면 괴벨스 선전 장관의 제국 영상원에 들어가서 나치를 찬양하는

영화에도 출연했었다고 확인해주었다. 물론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그랬듯이 그녀도 역시 불가항력의 선택이었다고 변명했다. 아무튼 그녀의 예술 활동에서 그런 혐의 때문에 그녀의 위대한 세계가 퇴색하는 일은

없다. 일세를 풍미했던 위대한 소프라노는 2006년 8월 3일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경계 지역인 슈룬스(Schruns)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다.

낙소스로 발매된 슈바르츠코프의 명반들



2 CD SET

바흐 :
B단조 미사(1952-1953)
게다 카라얀

Naxos 8.111053-54



2 CD SET

훈퍼딩크 :
헨젤과 그레텔(1953)
카라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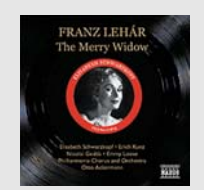
Naxos 8.1110897-98



2 CD SET

레하르 :
웃음의 나라(1953)
아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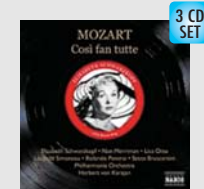
Naxos 8.111016-17



2 CD SET

레하르 :
메리 위도우(1953)
쿤츠 게다

Naxos 8.111007



3 CD SET

모차르트 :
코지 판 투테(1954)
오토 카라얀

Naxos 8.111232-34



2 CD SET

요한 슈트라우스 :
박쥐(1955)
게다 카라얀

Naxos 8.111036-37



2 CD SET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네 개의 마지막 노래/
아라벨라 하이라이트
(1953, 1954)
아커만
마타치치

Naxos 8.111145



2 CD SET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낙소스의 아리아드네
(1954)
슈트라이크
카라얀

Naxos 8.111033-34



2 CD SET

베르디 :
레퀴엠(1954)
디 스테파노
데 사바타

Naxos 8.111049-50



4 CD SET

바그너 :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거
(1951)
카라얀

Naxos 8.1110872-75



Naxos New Releases



Naxos 8.557463

구노: 교향곡 1번, 교향곡 2번

신포니아 핀란디아 / 패트릭 갈르와

오페라와 종교음악 작곡가로 유명한 구노가 교향곡을 남겼다는 사실은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교향곡 1번은 1950년대에 들어와서야 발견된 작품. 제2차 세계 대전의 교향곡 1번을 연상케 하는 간결한 구성과 경쾌한 악상이 돋보이는 숨겨진 걸작이다. 교향곡 2번은 보다 정교하게 세공된 진지한 면모의 작품. 특히 순간순간 드러나는 목관의 색채적인 활용이 돋보인다.



Naxos 8.570133

슈만: 현악사중주 1,3번 (스트링오케스트라를 위한 편곡)

몬트리올 플레이어즈 / 장 필립 트렐블레

1842년은 슈만에게 있어서 실내악의 해였다. 그는 당시 고전양식에 대한 진지한 학습 이후 불과 몇 주 만에 세 편의 현악사중주를 완성시켰다. 그 중 1번과 3번을 스트링 오케스트라를 위한 편곡으로 수록하였다. 편곡은 이 음반의 지휘자인 트렐블레가 직접 맡았다. 보다 풍성하게 부풀려진 소리의 양감을 통해 원곡의 로맨틱한 정서가 한층 우아하고도 부드럽게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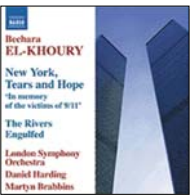


Naxos 8.559302

아담스: 바이올린협주곡, 코릴리아노: 레드바이올린 중 사콘느 외

클로에 한슬립, 바이올린 / 로알 뢰하모닉 오케스트라 / 레너드 슬래트킨

워너에서의 데뷔음반을 통해 신동연주자로 각광받았던 한슬립이 보다 진지해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20세기 협주곡레퍼토리로 확고히 자리 잡은 아담스의 걸작 바이올린협주곡과 더불어 영화 레드바이올린에서 심금을 울렸던 코릴리아노의 사콘느와 더불어 왁스만이 편곡한 에네스쿠의 루마니아 랩소디와 트리스탄과 이졸데 환상곡을 함께 담았다.



Naxos 8.570134

엘-쿠리: 뉴욕, 눈물과 희망, 바이올린 6중주, 물결, 잃어버린 단편, 삼켜진 강들

히데키 나가노, 디미트리 바실라키스, pf / 런던 심포니 / 다니엘 하딩, 마틴 브라빈스

관현악법의 대가로 유럽음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레바논 출신의 작곡가 엘-쿠리의 관현악 작품들을 수록한 음반으로 모든 수록곡들이 최초로 녹음되는 것들이다. '뉴욕, 눈물과 희망'은 9.11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작품. 세상의 평화와 인류애를 담은 작품 '삼켜진 강들'은 조만간 내한을 앞두고 있는 차세대 거장 다니엘 하딩이 지휘를 맡았다.



Naxos 8.555020

존 윌리엄스: 스타워즈, 클로스 인카운터, 골드스미스: 에이리언, 로젠탈: 메테오, 라르손: 베틀스타 갈락티카

리처드 헤이먼과 그의 오케스트라

스타워즈, 에이리언,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등등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한 SF 걸작들의 사운드트랙을 이 음반에서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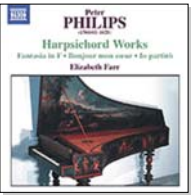


Naxos 8.570239

파트: 무반주합창곡집 (Triodion, I am the True Vine, Nunc dimittis etc)

엘로라 페스티벌 싱어즈 / 노엘 에디슨

'파시오'와 '베를린미사'에 이어 낙소스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또 하나의 파트트 종교합창곡. 이미 '베를린 미사'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엘로라 페스티벌 싱어즈의 순정의 앙상블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한다. 수록곡들은 모두 90년대 중반이후에 완성된 비교적 신작들. 작은 중소리를 의미하는 작곡가 특유의 음악표현법인 '틴티나볼리'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소노리티와 교회선법에 뿌리를 둔 신비로운 선율이 크나큰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Naxos 8.557864

필립스: 하프시코드 작품집(판타지아, 파반느, 갈리어드, 파사메초 외)

엘리자베스 파, 하프시코드

버드 이후 가장 중요한 영국 작곡가의 한 사람인 피터 필립스. 그의 생애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으나, 종교합창곡과 건반작품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여럿 남겼다. 판타지아 F장조를 비롯한 작곡가의 대표적인 건반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연주에 사용한 악기는 1685년 로마의 악기장인 예로메 데 젠티스가 제작한 오리지널 이탈리아 모델.



Naxos 8.570189

히나스테라: 기타 소나타, 로드리고: 3개의 스페인 소품, 파야: 드뷔시의 무덤, 헤투: 모음곡 외

제롬 뒤사르메, 기타

2005년 미국 기타재단 콩쿠르 우승자인 캐나다 기타리스트 제롬 뒤사르메의 리사이틀 음반. 스페인 전통음악에 기반을 둔 로드리고의 작품에서부터 콩쿠르 시험곡이었던 댜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젊은 연주자의 화려한 기예를 음반 가득 담았다.



Naxos 8.570263

모차르트: '8살의 모차르트' (건반과 플루트를 위한 소나타 K10-15)

캐럴 윈센크, 플루트 / 지나 랩스, 피아노

1764년 8살의 모차르트는 런던으로 연주여행을 떠났다. 음반에 수록된 여섯 소나타는 그 기간 중에 완성되어 이듬해 출판된 것들. 솔로파트는 바이올린 또는 플루트로 연주가 가능하며, 반주의 수준을 넘어서는 주도적인 건반파트가 덧붙여진 작품들이다. 당시 영국에서 활약했었던 JS 바흐의 막내아들 요한 크리스티안의 영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지는 편이나, 어린 신동의 조숙한 음악적 재능이 이때부터 이미 한껏 물이 올랐었음을 쉽게 확인하게 된다.



Naxos 8.570092

쇼스타코비치:
피아노소나타 2번, 맑은 시내, 어린이의 연습장,
5 전주곡, 3개의 소품

콘스탄틴 세르바코프, 피아노

작곡가의 탄생 100주년에 걸맞은 주목할 만한 신보가 등장하였다. 낙소스의 간판 피아니스트로 급부상한 콘스탄틴 세르바코프가 전쟁기간 중의 작품인 피아노소나타 2번과 가벼운 성격의 피아노소품들을 녹음하였다. '어린이 연습장'은 작곡가가 자신의 딸 갈리나를 위해 작곡한 사랑스러운 소품들. 발레 '맑은 시내'의 작곡가 자신의 피아노편곡은 이번에 최초로 녹음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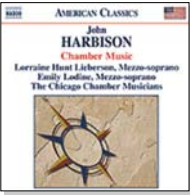


Naxos 8.557697

릴번: 섬의 노래, 생일선물, 숲, 드라이스테일 서곡,
아오테아로아 서곡, 축전서곡, 행진팡파르

뉴질랜드 심포니 / 제임스 저드

더글라스 릴번(1915-2000)은 뉴질랜드 클래식음악계를 대표하던 작곡가였다. 본 음반에는 마오리족 민속음악을 비롯한 뉴질랜드 전통음악에 기반을 둔 그의 관현악작품들을 수록하였다. 남도의 이국적인 선율이 시벨리우스나 본월리엄스를 연상케하는 견실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 표현된 그의 매력적인 관현악소품들을 만나보시라.



Naxos 8.559188

하비슨: 실내악작품집 (남과 북, 여섯 미국 화가들, 세 현자, 시간과 계절의 책)

로레인 헌트 리버슨 & 에밀리 로딘, 메조 / 시카고 체임버 뮤지션

폴리처상 수상자인 존 하비슨의 실내악 작품집. 동양의 선법에 기초한 '시간과 계절의 책', 미국의 주요화가들의 영감을 음악으로 표현한 '여섯 미국 화가들' 등이 수록되었으며, 엘리자베스 비숍의 시에 곡을 붙인 '남과 북'에서는 얼마 전 아쉽게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메조소프라노 로레인 헌트 리버슨의 음성을 만날 수 있다.



Naxos 8.570166

엘가:
피아노 음악
(수수께끼변주곡, 드림차일드, 소나티나,
카리시마, 5월 노래 etc)

애슬리 와스, 피아노

엘가의 대표작인 '수수께끼변주곡'을 작곡가 자신의 피아노편곡 버전으로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조카딸을 위해 작곡한 매력적인 소나티나, 작곡가의 가장 서정적인 작품들 중 하나인 '드림차일드' 등 그동안 쉽게 발견하기 힘들었던 엘가의 또 다른 일면을 이 음반을 통해 만나게 된다. 백스 등의 영국 근대 작곡가들의 음반들로 큰 성공을 거둔 애슬리 와스가 연주를 맡았다.



Naxos 8.559266

캐스캐리노: 피그말리온, 갈라테아의 초상, 유리칼, 명상곡과 엘레지, 아카디아 외

필라델피아 필하모니아 / 조안 팔레타

거의 자습을 통해 음악을 익혔던 로메로 캐스캐리노는 독창적인 조성법과 화려한 관현악법으로 명성을 날렸던 작곡가였다. 본 음반에서는 그리스 신화에 심취했었던 작곡가의 일면을 만나게 된다. 마린 알소프와 더불어 지휘대 위의 우면파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휘자 조안 팔레타가 지휘를 맡았다.



Naxos 8.559288

우리넨: 현악육중주, 현악사중주 2번, 디베르티멘토, 피아노오중주

티시 앙상블 / 더 그룹 포 컨템포러리 뮤직 /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찰스 우리넨은 독특한 악기조합을 통해 모더니스트로서의 자신의 음악관을 적극적으로 표출해왔던 작곡가이다. 본 음반의 수록곡들은 전통적인 악기편성에 기초한 실내악 작품들이다. 모더니스트임에도 브람스와 베토벤의 음악을 지향해왔던 그의 음악철학이 전통적인 포맷의 이 작품들에서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Naxos 8.660196-97

사키니: 콜로네의 오에디페

프랑스와 루, 오에디페 / 나탈리 파울린, 안티고네 / 로베르 게셀, 폴리니체 / 오페라 라파예트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리안 브라운

18세기 후반 이탈리아 오페라 세리아의 한 사람이었던 안토니오 사키니의 대표작. 오이디푸스의 에피소드에 기초한 이 작품은 바로크오페라로는 보기 드문 극적 짜임새와 서정적인 선율을 자랑하는 이 작품은 특히 베를리오즈로부터 극찬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Naxos 8.66017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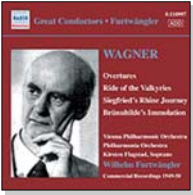
바그너: 발퀴레

로버트 갬벌, 지그문트 / 아틸라 욤, 훈딩 / 얀 헨드릭 로터링, 보탄 / 안젤라 데노케, 지글린데 / 레나테 베를, 브륀힐데 / 슈투트가르트 슈타츠오퍼 / 로타르 차그로셴

<라인의 황금>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자그로셴의 링 사이클. TDK의 영상물로도 큰 호평을 받았던 이 연주는 신선한 연출 못지않게 음악적으로도 대단히 충실한 프로덕션으로 유럽 오페라계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Naxos Historical, Jazz Legends



Naxos 8.110997

바그너: 오케스트라 하이라이트 (1948-50년 녹음)

히르스텐 플러그스타트 /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필하모니아 / 빌헬름 푸르트벵글러

푸르트벵글러가 만년에 남긴 상업레코딩들 중에서 바그너의 인기곡들을 엄선하였다. 방황하는 화란인 서곡, 마이스터징거 서곡, 3막 전주곡, 도제의 춤, 발키레의 승마, 지그프리트의 라인여행, 창송행진곡, 그리고 위대한 바그너 히로인 플러그스타트가 절창한 브륀힐데의 희생을 수록.



Naxos 8.111112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 5번 <황제> 1934, 1939년 녹음

발터 기제킹, 피아노 / 작센 슈타츠키펠레 / 칼 뵘, 빈 필하모니 / 브루노 발터

20세기 중반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피아니스트 발터 기제킹이 남긴 베토벤의 가장 유명한 피아노협주곡들, 더구나 칼 뵘과 브루노 발터가 지휘를 맡은 연주들이니 그 값어치는 더욱 각별하다. 워드 마스톤의 뛰어난 복각 덕분에 녹음연대에 비해 상당히 명징한 사운드로 거장의 연주를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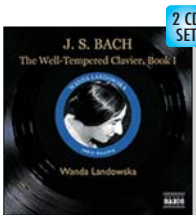


Naxos 8.111053-54

JS 바흐: 미사 B단조 1952-53년 녹음

엘리자베스 슈바르츠코프, 소프라노 / 마르가 회프겐, 알토 / 니콜라이 겐타, 테너 / 하인트 레푸스, 베이스 / 빈 악우협회 합창단 / 빈 필, 필하모니아 /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카라얀의 이 전설적인 음반은 레코딩 과정이 특이했다. 솔리스트들은 런던에서 필하모니아와 함께, 합창은 빈에서 빈 필의 반주로 녹음되었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편법이나 바흐의 대작을 바라보는 장년기 카라얀의 심미안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록임에는 틀림없다.



Naxos 8.110314-15

JS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 1권 1949-51년 녹음

완다 란도프스카, 하프시코드

박물관 속의 하프시코드에게 새로운 전성기를 선사했던 선각자 중 한 사람인 란도프스카. 이 평균율을 바흐의 사망 200주기를 기념하여 녹음된 것으로, 이 위대한 건반연주자의 심원한 예술적 깊이가 느껴지는 노작이다. 비록 개량식 악기를 이용한 연주이지만, 반세기 이전에도 이토록 신선한 생명력을 지닌 연주가 가능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Naxos 8.120820

Count Basie: Circus in Rhythm

낙소스를 통해 복각된 스윙재즈의 대부 카운트 베이시의 네 번째 음반. 빅밴드와 어우러져 자연스러운 스윙을 구사한 위대한 재즈 피아니스트가 1944-45년 사이의 라디오 녹음과 V-디스크에서 복각한 음원들에서 대표곡들을 간추렸다.



Naxos 8.120794

어빙 베를린: Call Me Madam

'White Christmas'와 'God Bless America'의 작곡가 어빙 베를린이 1950년에 작곡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Call Me Madam'. 오리지널 브로드웨이 캐스팅, 1950년 스튜디오 레코딩, 1953년 동명 뮤지컬영화의 사운드트랙을 이 음반에서 함께 만날 수 있다.



Naxos 8.558193-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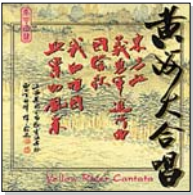
영국 클래식 음악 이야기

중세 작자미상의 성악곡에서 시작하여 던스터블, 타베너, 탈리스, 버드의 다성음악들, 다울랜드의 류트송, 로이스의 비올콘소트, 퍼셀과 보이스, 존 필드의 야상곡, 설리반의 오페레타, 엘가, 델리어스, 벅스, 본 윌리엄스, 홀스트, 월튼, 브리튼, 티펫, 아놀드, 맥스웰 데이비스, 존 테브너에 이르는 영국 클래식 음악의 튼튼한 전통을 2장의 CD와 120페이지 분량의 충실한 복릿을 통해 만난다.



www.naxos.com

Marco Polo



Marco Polo 8.223613

싱하이: 황하 칸타타

상하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 카오 덩

황하칸타타는 중일전쟁당시 황하일대에서 항일투쟁을 벌였던 시인 구양 웨이란의 시에 작곡가 시안 싱하이가 곡을 붙인 드라마틱한 작품이다. 1939년 초연된 이 작품은 풍전등화의 중국인들에게 뜨거운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서곡의 음악기법을 활용하여 중국의 전통적인 선율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이 작품은 중전이후 지금까지도 중국인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Marco Polo 8.225285

요한 슈트라우스 1세 작품집 Vol.9

슬로박 신포니에타 칠리나 / 크리스티안 폴락

슈트라우스 1세가 빈 무도회의 주역으로 서서히 자리매김하던 시절인 1830년대에 완성된 작품들을 담았다. 작곡가 특유의 흥겹고도 씩씩한 악상의 작품들로 가득하며, 특히 로시니, 마이어베어, 오베르, 벨리니 등의 유명 오페라의 선율들을 재미있게 패러디한 음악 포프리인 '음악전보'에 주목할 만하다.



www.dacapo-records.dk

DACAPO



Naxos 8.226050

타베너: 서풍 미사(Western Wind) & 코니시, 타이, 브라운의 합창곡들

아르스 노바 코펜하겐 / 폴 힐리어

16세기 영국 폴리포니 종교합창곡의 황금기를 장식했던 작곡가 존 타베너의 대표적인 미사 작품인 서풍미사를 북구 최고의 르네상스 폴리포니 전문 합창단인 아르스 노바가 노래하였다. 타베너와 동시대 작곡가인 코니시, 타이, 브라운의 작품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이 시대 최고의 합창지휘자 폴 힐리어가 객원지휘를 맡았다.

London Philharmonic Orchestra
www.naxos.com

LPO



LPO 0013

아놀드: 교향곡 6번, 필하모닉 협주곡, 여섯 번째 행복의 여관 모음곡, 베크스 더 댄디프랴트 서곡 외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버논 헨들리
영화 '카이 강의 다리'의 사운드트랙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말콤 아놀드는 영국 클래식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현존 대작곡가이다. 그는 작곡가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직전인 1953년까지 런던 필의 수석 트럼펫터로 활약하면서 이 악단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본 음반의 수록곡들 중에서 필하모닉 협주곡은 바로 런던 필의 위촉으로 작곡된 작품이며, 이번에 최초로 녹음되는 25번째 생일을 위한 취주 역시 런던 필의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완성한 작품이다. 그 외에도 작곡가의 대표적인 관현악곡인 서곡 '베크스 더 댄디프랴트'와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중 단두대로의 행진곡에서 받은 영감을 자신의 스타일로 표현한 작품인 교향곡 6번이 함께 수록되었다. 영국 근현대 관현악곡에서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포스를 발휘해온 버논 헨들리가 지휘를 맡았다. 2004년 9월 24일 로얄 페스티벌 홀 실황.



LPO 0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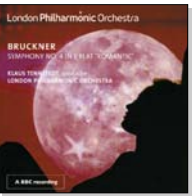
브루크너: 교향곡 4번 <로맨틱>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클라우스 텐슈테트
이 음반에 앞서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음반으로 발매되었던 텐슈테트의 브루크너 교향곡 4번은 모두 다섯 종류의 음원이었다. 최초로 음반으로 선보이는 이 연주는 지금까지 음원들 중 가장 최근의 기록에 해당하는 1989년 12월 14일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의 실황을 옮긴 것이다. 사용한 판본은 이전 음원들과 동일한 1878/80 하스판. 완전한 템포로 스케일 큰 음악을 구사했던 거장의 특징이 여실히 발휘된 수연으로, 파인넬 타이즈는 다음과 같이 이날의 연주회에 찬사를 보냈다. "거대한 클라이맥스 다다르는 순간 연주의 건실한 파워는 완전히 압도할 정도다. 텐슈테트는 이 시대의 몇 안 되는 진정한 거장이다." 또한 이 음반은 최근 사망한 악단의 수석 혼 주자 니콜라스 부슈를 추모하는 음반이기도 하다.

— 클라우스 텐슈테트의 BMW 3종 세트 —

Bruckner : 교향곡 4번 <Romantic>

Mahler : 교향곡 1번 <Titan>, 방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Wagner : 관현악 하이라이트(리엔치, 마이스터징거, 신들의 황혼, 탄호이저, 발퀴레)



LPO-0014



LPO-0012



LPO-0003



Musikproduktion
Dabringhaus und Grimm[MD&G]



MDG 301 1399-2

모차르트 에디션!!!
모차르트의 작품 중에 이런 것들도 있었는가?!

The Unbelievable Mozart : Special Box Set (7 for 3 Price)

Consortium Classicum
92페이지 분량의 두툽한 북릿.
모차르트의 희귀작품들을 꾸준히 발굴, 연주해온 콘소르티움 클래식 콤의 <모차르트> 시리즈 7편을 스페셜 패키지로 묶었습니다. 이미 레프트와 추천음반, 포노포럼 만점, 에코 클래식 추천음반 등에 선정되면서 호평을 받았던 이 값진 음반들을 경제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필립스의 거창한 모차르트 에디션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작곡가의 희귀작품들 (그중 일부는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으로 의심받는 것들도 포함되지만)을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탄생 250주년을 맞아 이 땅의 모차르티안들에게 찾아온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Vol. 1] Octet F major K C 17.05 & B to 370a, Sextet E flat major K deest, Octet E flat major K C 17.03
- [Vol. 2] Octet E flat major K C 17.04, 17.07 & B to 370a, Octet B flat major after K 425, Theme and Variations on "Unser dummer Pöbel" F major
- [Vol. 3] Octet E flat major K deest, Sextet B flat major K 439b, Serenade E flat major K deest
- [Vol. 4] Sextet E flat major after K 386c/563, Sextet B flat major K C 17.09, Octet F major after K 497
- [Vol. 5] Quintet B flat major after K 458, Octet E flat major after K 452, Quartet E flat major K deest
- [Vol. 6] Serenade E flat major after K 614, Fragments K 384, Nonet E flat major after K 428
- [Vol. 7] Adagio B flat major K 484a, Serenade B flat major K 370a "Gran Partita"



MDG 601 1395-2 일반CD
MDG 901 1395-6 Hybrid-SACD

요제프 하이든 : 트럼펫 협주곡 & 교향곡 83번 '암탉'
미카엘 하이든 : 트럼펫 협주곡 & 세레나데
볼프강 바우어, 트럼펫 / 뷔템베르거 체임버 오케스트라 / 루벤 가차리안
과거 일요일 아침을 깨웠던 '장학퀴즈'의 바로 추억의 그 음악. 파파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을 1993년 ARD 콩쿠르 우승자이자, 슈투트가르트 WDR 오케스트라의 수석 겸 볼프강 바우어 콘소트의 리더인 독일 정상급 트럼펫터 볼프강 바우어의 화려한 기량으로 만난다. 여기에 '암탉'이라는 재미있는 표제의 교향곡 83번과 동생 미카엘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과 세레나데를 함께 담았다. 슈바이게른 교회의 뛰어난 어쿠스틱을 실감할 수 있는 멀티채널 Hybrid-SACD버전도 함께 발매되었다.



MDG 337 1205-2 일반CD
MDG 937 1205-6 Hybrid-SACD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13번 '바비야르'

타라스 쉬톤다, 베이스 /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 / 로만 코프만

우크라이나 출신의 거장 로만 코프만이 진행 중인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시리즈의 5번째 음반. 러시아내 유대인들의 고통과 스탈린 지하의 공포정치를 비판했던 옌투첸코의 텍스트를 대편성 남성합창과 관현악으로 스펙터클하게 그려내었던 교향곡 13번 '바비야르'를 담았다. 우크라이나 국립 오페라의 간판스타인 정통 슬라브 베이스 쉬톤다의 단단한 저음과 체코필하모닉 합창단의 목직한 앙상블이 작품의 스케일을 한층 장대하게 만들어준다.



MDG 301 1415-2

그라냐니: 실내악 작품집

(바이올린, 클라리넷과 두 대의 기타를 위한 사중주/ 플루트, 바이올린, 기타를 위한 트리오/ 기타이중주/ 플루트,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두 대의 기타를 위한 육중주)

콘소르티움 클라시쿰

기타음악과 실내악애호가들이라면 이 음반에 주목하시라. 베토벤과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탈리아의 재기 발랄한 작곡가 필리포 그라냐니가 작곡한 기타를 포함하는 특징적인 실내악 작품들을 음반에 담았다. 단순한 기타와 현악기 조합이 아닌 다양한 종류의 목관악기들과 호흡을 맞추으로써 이 우아한 발현악기의 또 다른 매력을 한껏 구가하였다. 그동안 왜 이 작품들이 주목받지 못했는지 의아할 정도로 사랑스러운 작품들.



MDG 320 1337-2

JS 바흐 : 바흐와 함께 하는 교회력 (종교전례와 관련된 바흐의 오르간 작품들)

엘리자베트 볼로프, 오르간

본 신보에 수록된 바흐의 오르간 작품들은 3종류의 작품집에서 간추린 것들이다. 1708년 바이마르시절에 완성된 '오르간소곡집'과 만년의 두 작품집인 '건반작품집'의 파트3과 '쉬블러코랄집'이 그것들이다. 각종 코랄 프렐류드를 중심으로 토카타, 판타지아 등이 2장의 음반을 빼곡히 채웠다. 이미 '크리스마스를 위한 오르간음악' 등으로 호평을 얻었던 알랭의 제자, 볼로프가 예루살렘 구세주 루터교회의 오르간으로 이 음반을 완성하였다.



MDG 304 0882-2

헨체 : 실내악 작품집 Vol.2

(9개의 민요와 양치기노래/ 젊은 퇴를레스/ 중, 레치타티브, 마스크/ 독백과 대화/ 가을)

앙상블 빌라 무지카

독일 현대음악계를 대표하는 현존 최고의 작곡가 한스 베르너 헨체. 그의 실내악을 담은 이번 신보는 그의 탄생 8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음반이기도 하다. 바순, 기타, 3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9개의 민요와 양치기 노래〉, 독일의 거장 볼케 슐렌도르프 감독의 영화 '젊은 퇴를레스'의 영화음악의 현악육중주 버전, TV 배경음악으로 작곡된 만돌린, 기타, 하프를 위한 〈중, 레치타티브, 마스크〉, 비올라, 기타, 오르간을 위한 〈독백과 대화〉, 피콜로, 클라리넷, 오보에 다모레, 콘트라바순, 바그너 튜바를 위한 〈가을〉 등 색다른 악기 조합이 만들어내는 신선한 소노리티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MDG 343 1421-2 일반CD
MDG 943 1421-6 Hybrid-SACD

멘델스존 : 피아노 협주곡 1번 & 2번, 피아노 소품들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 피아노 /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 일란 볼코프

멘델스존의 두 협주곡은 라인 강 일대로 떠났던 신혼여행의 달콤함과 이탈리아 여행에서 경험했던 남국의 강렬한 태양을 음악으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여류피아니스트 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가 이제 막 20대를 벗어난 젊은 차세대 거장 일란 볼코프가 이끄는 잘츠부르크 카메라타와 호흡을 맞추었다. 신구의 조화로 아름답게 풀어낸 멘델스존의 경쾌한 악상들이 MDG의 우수한 녹음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어 온다. 작곡가의 또 다른 무언가라고 할 수 있는 베네치아의 곤돌라 송을 비롯한 피아노 소품들이 함께 수록되었다.



MDG 603 1320-2 일반CD
MDG 903 1320-6 Hybrid-SACD

레온디 : 콘체르티나를 위한 작품들

헬무트 C 아콕스, 아코디언

콘체르티나는 지금은 사라진 손풍금과 유사한 구조의 리드악기. 기타음악들로 유명한 제네바 출신의 낭만파 작곡가 레온디가 이 비운의 악기를 위해 완성한 음악들을 아코디언의 명인 헬무트 아콕스가 연주를 맡았다. 당대의 명 기타리스트로 활약했던 작곡가는 런던으로의 연주여행 중에 과학자 겸 악기제작자였던 찰스 휘트스톤을 만났는데, 그가 개발한 새로운 악기가 바로 콘체르티나였다. 이 악기를 다시 재현하지는 못했으나, 구조적으로나 음색적으로 가장 유사한 악기인 아코디언을 통해 연주되었기에 작품들의 매력을 감상하기에는 그리 무리가 없을 것이다.



MDG 307 0857-2

베토벤 : 현악사중주 Op.59-2 '라즈모프스키' & Op.95 '세리오소'

라이프치히 현악사중주단

실내악 명가 MDG의 간판 연주단체로 활약하면서 무수한 명연들을 선보였었던 라이프치히 현악사중주단이 베토벤 현악사중주 사이클의 8번째 음반을 내놓았다. 이 사이클은 마지막 9번째 음반으로 완결될 예정이다. 수록된 두 현악사중주는 작곡가의 중기에 완성된 것들로, 개인적인 예술적 야심과 대중적인 취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작품들이다. Op.59-2는 이 작품을 위촉한 빈의 러시아 대사 라즈모프스키 백작을 기리기 위해 러시아 풍의 선율을 인용한 것이 특징적이며, Op.95는 '세리오소'라는 별명 그대로 작곡가의 진지한 음악관이 전해져오는 작품.



MDG 605 1369-2 일반CD
MDG 905 1369-6 Hybrid-SACD

슈틸첼 : 크리스마스 칸타타, 가스펠 칸타타, 테 데움

헨델스 컴퍼니 / 레고 마리아 칸토라이 실내합창단 / 라이너 요하네스 홀부르크

슈틸첼(1690-1749)은 바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작곡가로 고타의 궁정작곡가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기악곡과 함께 1200여 편의 칸타타를 포함하는 방대한 양의 종교작품들을 양산하였다. 음악학자 마테존은 '감각과 지식을 겸비한 위대한 작곡가'라고 그를 칭송하였고 바흐 역시도 라이프치히 시절 이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곤 했다.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선보이는 슈틸첼 음반으로, 독일 바로크 종교합창곡 애호가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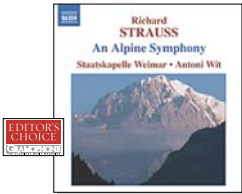
MDG 645 1402-2

플레이어 피아노 2집 (1900 무렵 유명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한 쇼팽)

뵘젠도르프-암피코 플레이어 피아노

플레이어 피아노는 천공된 테이프를 통해 기록된 과거의 연주들을 재생하게끔 고안된 자동연주 피아노. 레코드가 없던 시절 연주자의 기록을 남기기 위한 몇 안 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본 음반은 로맨틱시대의 전설적인 아홉 거장들(레오 오펜슈타인, 외젠느 달베르, 페루치오 부조니, 알프레드 라이젠나우어, 레오폴트 고도프스키, 모리츠 로젠탈, 미샤 레비츠키, 미에지슬라브 뮌츠, 알프레드 미로비츠)이 연주한 쇼팽의 작품들을 플레이어 피아노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끔 한다.

Hot Issu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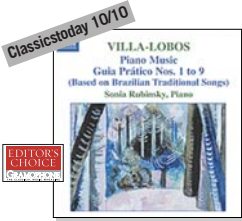
Naxos 8.557811

***Gramophone 2006년 9월호 Editor's Choice**

R 슈트라우스: 알프스 교향곡

슈타츠카펠레 바이마르 / 안토니 비트

안토니 비트를 낙소스 전속 지휘자로 폄하했던 이들이라면 앞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그는 이 음반에서 본질적인 알프스 교향곡을 제공한다. 그간 그리 알려지지 않았던 슈타츠카펠레 바이마르는 듣는 이를 관현악의 질풍 속으로 몰아넣다가 백엽의 열기 속에 담근다. 비싼 라이벌들을 능가하는 예가 음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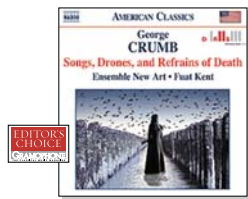
Naxos 8.570008

***Gramophone 2006년 10월호 Editor's Choice & Classicstoday 10/10**

빌라로보스: 피아노 작품집 Vo.5

소니아 루빈스키 pf

빌라로보스가 최선의 방법으로 재작업한 이 브라질의 동요들에서는 유치한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들은 분명 동심과 같은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이들의 단순한 선율 이면에는 깊은 감성이 담겨있으며, 피아니스트 소니아 루빈스키는 어른들의 복잡한 심성에 힌트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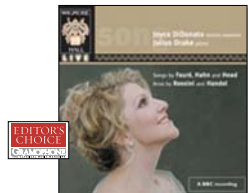
Naxos 8.559290

***Gramophone 2006년 10월호 Editor's Choice**

크럼: 노래와 드론 그리고 죽음의 후렴들, 퀘스트

양상블 뉴 아츠 / 푸앗 켄트

조지 크럼은 유일무이한 작곡가다. '노래와 드론 그리고 죽음의 후렴들'이라는 메인 수록곡의 타이틀에 마음이 심란하다면, 단지 음악을 들어보길 바란다. 크럼은 서로 다른 음악적 영향들을 활용하여 이 세상이 놀랍고 또 때로는 비열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다.



WHLIVE 0009

***Gramophone 2006년 10월호 Editor's Choice**

조이스 디도나토 위그모어홀 리사이틀

베니스로의 여행(로시니, 헤드, 포레, 한의 베니스를 소재로 한 가곡들)

조이스 디도나토, ms / 줄리어스 드레이크, pf

조이스 디도나토는 완전히 갖추어진 스타 메조소프라노로 음악계에 등장하였다. 이 멋진 리사이틀은 바로 그 증거이다.



Naxos 8.559302

***Gramophone 2006년 10월호 추천음반**

아담스: 바이올린협주곡, 코릴리아노: 레드 바이올린 중 사콘느 외

클로에 한슬립 vn / 로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레너드 슬래트킨

이 음반에 보여준 연주라면 클로에 한슬립 평생의 명성을 보장해줄 것이다. 그는 기동 크레머가 어찌면 자기보다 더 뛰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심오한 감정이입을 이 작품들에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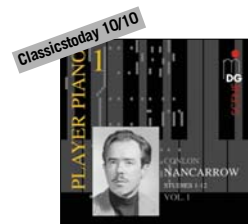
DACAPO 8.226050

***Classicstoday 10/10**

타베너의 서풍미사와 튜더시대의 음악들

아르스 노바 / 폴 힐리어

이 우수한 합창단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가수들의 일반적인 특징들인 자유롭고 개방적인 보컬 사운드와 이지적이고도 원숙한 양상을 등을 포함한 모든 장점들을 갖추었다. 뛰어난 음악에 대한 멋진 연주.



MDG 645 1401-2

***Classicstoday 10/10**

플레이어 피아노를 위한 연구 VOL. 1 : 콘론 낸카로우

콘론 낸카로우(플레이어 피아노: 천공된 테이프를 사용하여 과거의 연주를 재현하게끔 고안된 피아노) 작곡가의 지시대로 변형시킨 뵘도르프 피아노 베이스의 아미코 플레이어 피아노 메카니즘을 사용하여 녹음한 것. 베르고 레이블의 음반과 달리 작곡가가 의도했던 독특한 사운드를 완벽히 재현하였다. 현대 음악 애호가라면 이 음반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MDG 619 1379-2

***Classicstoday 10/10**

파가니니: 24개의 카프리스 (색소폰 편곡)

라프 헤케마(sax)

완벽한 편곡, 경탄할 만한 연주, 입을 거리 풍부한 북릿, 자연스런 MDG의 음향. 파가니니가 다시 살아나 이 음반을 들어야만할 것이다.



Opus Arte OA0934D

***Gramophone 9월호 DVD of the Month**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노라 앙셀렘(비올레타), 호세 부로스(알프레도), 레나토 브루손(제르몽)

마드리드 테아트르 레알 / 헛수스 로페스 코보스 /

무대 연출 : 피에르 루이지 피치

거의 동시에 등장한 이 영상물과 화제만발의 비야손/넵트렌코의 영상물을 두고 모두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떠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스타가 부족한 이 영상물이 오히려 그것을 능가했다. 베테랑 레나토 브루손이 테아트르 레알의 이 빛나는 프로덕션에서 호세 브로스와 노라 앙셀렘과 함께 호흡을 맞추었다.



Opus Arte OA0949D

***Gramophone 2006년 10월호 DVD of the Month**

바그너: 신들의 황혼

진닌 알트메이어(브륄힐데), 하인츠 크루제(지그프리트), 쿠르트 라이들(하겐),

헨크 슈미트(알베리히)

네덜란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하르트무트 헨헨 /

무대 연출 : 피에르 오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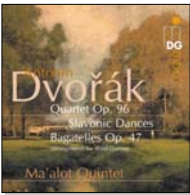
쿠르트 라이들의 사악한 하겐을 경험했던 이들이라면, 이 DVD의 등장이 대단히 기쁠 것이다. 피에르 오디의 프로덕션은 신선하며 도전적이다. 세로와 쿠퍼의 위대한 두 바이로이트 영상물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하나 더 추가해야할 아이템이 여기 있다.



독일의 유명한 클래식 음반상인 ECHO Klassik Award의 2006년 수상작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수상작에 포함된 MDG의 음반들을 소개합니다.

최우수 실내악 부문(Kammermusik-Einspielung des Jahres) 수상작

최우수 시대구분 없는 클래식 음반 부문(Klassik-ohne-Grenzen) 수상작



MDG 345 1356-2

드보르작 :
사중주 Op.96, 슬라브 춤곡,
바가텔 Op.47(관악 오중주 편곡)
마알룻 관악 오중주단



MDG 603 1324-2

스피리토 라티노
(드뷔시, 미요, 파야, 비제,
그라나도스 등의 라틴
색채의 음악들)
다니엘 고티에르(sax)
장은배(pf)

미국 뉴 에이지의 시인 로빈 스피버그의 애뜻하고 아련한 그리움의 선율

로빈 스피버그 Remembering You

〈겨울연가〉삽입곡으로 너무도 유명한 피아니스트

로빈 스피버그, 여러 차례의 카네기 홀 공연을 가졌던 미국 최고의 여성 뉴 에이지 피아니스트라고 부연 설명을 해도 다시 누구냐고 반문할 사람이 적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사실 그녀는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슴에서는 많이, 아니 아주 많이 알려진 피아니스트다. 그래도 고개를 가우뚱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대를 추억하며(Remembering You)’란 피아노 음악을 골라 첫 몇 소절만 들어보라. 그 가냘프고 애잔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순수한 멜로디는 사랑의 정감으로 온 국민의 가슴을 촉촉하게 만들었던 인기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애절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던 바로 그 음악이다. 이제는 ‘아 이 음악!’ 하면서 무릎을 치게 될 것이다. 로빈 스피버그의 피아노 음악은 역시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국내 흥행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도 흥미롭게 흘러갔는데, 그것은 고전음악 최고의 대중 명곡인 파헬렐의 카논의 편곡 물이었다. 오래 전 돌풍처럼 우리 가슴에 파고들었던 조지 윈스턴의 편곡 연주 외에도 이미 많은 연주자들이 이 명곡을 연주했었지만, 로빈 스피버그의 연주는 좀 달랐다. 즉 잔잔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감정을 실은 연주로 마치 격렬하게 상대방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역동적인 연주는 이미 조지 윈스턴으로 익숙해진 우리 관객들의 가슴에 파랑을 일으켰고, 단번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본 음반은 이렇게 대중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진 두 곡을 포함하여, 그녀의 베스트 넘버라고 판단되는 주옥같은 레퍼토리만을 엄선해서 16개 트랙을 구성한, 그야말로 베스트 컬렉션이다. 모든 음악이 그렇듯이, 그냥 흐르는 선율에 몸을 맡

기는 것보다는 작곡가의 의도를 알고 들어야 제대로 듣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스피버그가 자신의 음악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약설을 보태본다. 첫 곡으로 선택한 ‘하나의 마지막 모습(One Last Look)’은, 앞서 언급한 ‘그대를 추억하며’와 마찬가지로, 처음 몇 소절이 압권이다. 마치 잃어버린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 애잔한 선율이다. 하지만 그녀가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이 곡 전체는 세월의 뒤안길을 돌아보며 향수에 젖는 것, 그리고 기계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 있는 새로운 세기에서도 소망 가득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라고 한다. ‘피아노 룸에서의 저녁(Piano Parlour Soiree)’은 그녀가 미국 뉴

포트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벨쿠르 캐슬의 프랑스 고딕 무도장에서 콘서트를 열었을 때 느꼈던 기쁨을 가지고 작곡한 음악이다. 12세기 스테인드글라스 창, 높은 천장과 아름다운 발코니 등 건축물의 아름다운 모습이 음악에 우아하고 고풍스럽게 녹아들었다. ‘하티크바/희망의 노래(Hatikvah/The Song of Hope)’는 보헤미아의 작곡가 스메타나의 명곡 ‘몰다우’의 선율을 가지고 만든 단편

이다. 넘실거리는 물의 노래가 그녀의 손에서 애잔하고 거룩한 서정의 선율로 새로이 빚어졌다. 그녀는 스메타나의 멜로디가 이스라엘의 국가 하티크바와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하고 매우 놀랐다고 한다. 제목에 히브리어와 영어를 병치한 것은 히브리어로 ‘하티크바’가 ‘희망’이란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가 단순 번역 차원이다. 아주 거룩한 느낌이 드는 이 선율을 연주하면서 스피버그는 이스라엘의 국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적인 국가에 속한다고 극찬한다.

‘저와 걸어요(Walk with Me)’는 스피버그가 오래전 어머니와 함께 했던 추억으로 쓴 작품이다. 어느 봄날 사랑스런 눈빛을 건네는 어머니와 함께 말없이 걷던 일을 회상하며 썼다

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음표 하나하나에 애뜻한 사랑의 정감이 듬뿍 느껴진다. 이곡은 1999년에 발매된 ‘어머니(Mother)’란 음반에서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작품으로 소개되기도 했었다. ‘갈릴리로(Zum Gali Gali)’는 ‘안 나오면 쳐들어 간다’라는 가사로 우리가 일상에서 즐기는 노래이지만, 원래는 이스라엘의 초기 시오니스트들이 부르던 노래였다. ‘갈리 갈리’ 중복하고 있지만 우리말로로는 그냥 ‘갈릴리로’ 혹은 ‘갈릴리를 향해’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다. 이 멜로디를 들으면 옛날 코미디나 우리의 술자리 광경이 떠올라 자꾸 웃음이 나오려하지만 스피버그의 타건은 이 곡에 실린 유대인의 정서에 몰입한 듯 사뭇 진지하다.

스피버그는 설명이 필요 없는 명곡 ‘에텔바이스’도 추억을 반추하며 편안하고 듣기 좋게 연주해준다. ‘하누카의 기도(Chanukah Prayer)’는 유대교의 성전 헌당 기념일 하누카 이야기를 음으로 스케치했다. 잔잔하면서도 축일의 기쁨이 한껏 느껴지는 풍성한 피아노의 노래다. 이어지는 웅장한 스케일의 음악은 그녀의 최근작인 ‘명상(Meditation)’이다. 음폭이 넓은데다 피아노 고음이 저 멀리 확산되며 심리적인 공간을 훨씬 더 넓혀주는데 역시 꽤 인상적이다. ‘마술의 용 퍼프(Puff the Magic Dragon)’는 주지하듯이 미국의 남성 중창단 브라더스 포(Brothers four)의 노래로 널리 알려졌던 명곡이다. 스피버그의 타건은 다이내믹과 야릇한 리듬감을 잘 살렸다. ‘고요하게 내리는 빗속에서의 춤(Dancing in the Quiet Rain)’은 역시 스피버그 어머니와의 추억에 얹힌 선율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긴 비가 언제 그칠지 알고 싶으면 새들을 보면 된다’고 얘기해주었다고 한다. 비가 계속 내릴 것 같으면 새들이 빗물 웅덩이에서 춤을 춘다고 한다. 아무튼 그녀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런 빗물 정경이 연상된다. 잘 알려진 ‘툼발랄라이카(Tumbalalaika)’는 하누카 밤의 어린이들을 위한 노래다. 일종의 자장가라고 할 수 있다. 리듬이 춤추는 명곡 ‘노래하기(Sing)’도 참으로 감칠맛나게 연주했다.

‘제니를 위한 노래(A Song for Jennie)’는, 제목만 보면 연인을 상정한 노래인가 싶겠지만, 사실은 그녀의 할머니 ‘제니 스피버그’를 위해 쓴 작품이다.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왔던 할머니의 여정을 상상하며 그린 독특한 음화다. 할머니는 100세의 나이로 2003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아일랜드 민요로 너무도 유명한 ‘강물이 넓으니(The Water is Wide)’도 그녀의 손에서 다시 태어났다. 스피버그는 대중적인 감성에 위

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소 주관적인 느낌을 피력하려고 애썼다. 애절한 원래 가사를 음미하며 들으면 더욱 감동적이다. 이 아름다운 음반의 꼬리에는 장대한 돌림노래, 파헬렐의 카논이 달렸다. 즉흥성을 잘 살렸고, 이미 나온 음반에서는 보너스 트랙으로 마련되었던 것인데, 이 음반에서는 당당하게 이름을 내세웠다. 이곡에서마저도 애뜻한 서정, 아련한 그리움이 밀려온다.

글 / 이성일



AMC2-071



노르웨이 출신의 세계적인 베이스 연주자

아릴 안데르센 Arild Andersen

현재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재즈 베이스 연주자 중의 한사람으로 추앙 받는 아릴 안데르센은 1945년 10월 27일 노르웨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유명한 안 가르바렉 콰르텟에서 1967년부터 73년까지 활동하면서 실력과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이때는 그는 가수 카린 크로그(Karin Krog)와 함께 일하는가 하면, 필 우즈(Phil Woods), 텍스터 고든(Dexter Gordon), 햄프턴 호즈(Hampton Hawes), 조니 그리핀(Jonny Griffin), 소니 롤린스(Sonny Rollins), 그리고 칩 코리아 같은 지금은 최고의 거장이 된 미국 아티스트들과 함께 연주활동을 벌였던 아티스트다. 또 1972년부터 약 2년간 뉴욕에 체류하면서 안데르센은 스탠 게츠 콰텟, 샘 리버스트리오, 실라 조단, 스티브 쿤 등과도 일했다.

1974년에 아릴 안데르센은 자신의 콰텟 악단을 만들어 스칸디나비아와 유럽을 연주여행 했고 그 밴드와 함께 ECM에서 앨범 세 가지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1980년에도 스티브 도브로고스, 폴 모티언, 케니 힐러와 함께 새 밴드를 만들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ECM에서 일련의 음반들을 만들어냈다. 특히 그 당시 만든 앨범 세 가지는

노르웨이 그래미상을 타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 인상적인 활동은 1993년 랄프 타우터, 나나 바스콘첼로스와의 함께 "If You Look Far Enough"란 음반을 내놓음으로써 획기적인 전기를 맞았다. 이 음반 역시 ECM에서 발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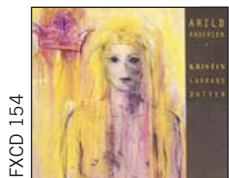
안데르센은 노르웨이 전통 음악과 즉흥재즈 음악의 결합을 시도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다. 1988년에 노르웨이의 유명한 포크 가수 히르스텐 브라텐 베리(Kirsten Braaten Berg)와 "Sagn"이란 앨범을 만들었는데, 이 음반은 처음엔 히르켈리히 레이블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ECM에서 재 발매되었다. 이 음반을 제외하고 히르켈리히 레이블을 통해 나온 최초의 중요한 음반은 1993년에 나온 "Arv"다. 1994년에도 괄목할 만한 작업을 내놓았다. 바로 1928년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운세트의 삼부작 <라브랑스가의 딸 크리스틴>의 극장 버전에서 음악을 맡았는데, 이 음악이 높은 인기를 끌자 아예 히르켈리히에서 콘서트 버전으로 음반을 새로 만들었다. 이 음반은 그의 히르켈리히 음반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이다.

히르켈리히에서 나온 아릴 안데르센의 명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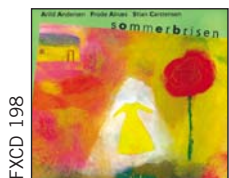
Arild Andersen : Arv

ECM 레이블을 대표하는 노르웨이 재즈 베이스 연주자, 아릴 안데르센의 힐켈리히 발매 앨범. 그는 이 앨범을 통해 노르웨이 음악 전통에 현대적 사운드를 가미하여 평론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추천곡 : #2, #10, #11



Arild Andersen : Kristin Lavransdatter

이미 ECM을 통해 세계적인 베이스 주자로 거듭난 안데르센의 힐켈리히 대표적 작품. 연극에서 사용되기 위해 작곡, 연주된 작품답게 음악의 흐름이 매우 드라마틱하며, 특히 수록곡 4번은 Kenny G를 연상시킬 만큼 애수어린 소프라노 색소폰이 인상적이다.
*추천곡 : #4



Arild Andersen : Sommerbrisen

노르웨이가 배출한 세계적인 재즈 베이스 연주자 아릴 안데르센의 98년도 앨범.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는 함께 협연한 기타, 아코디온과의 호흡을 중시해 편안하고 따스한 연주를 전한다. 1번 트랙 <Det Gar En Vind (데 고르 엔 빈: 지나간 바람)>은 이미 각종 드라마 등 TV프로그램을 통해 친숙해진 아름다운 곡.

BBC
Opus ARTE

BBC / Opus Arte DVD



BBC/Opus Arte
OA 0960 D

모차르트 : 피가로의 결혼

21세기의 웨딩드레스 속에서 펼쳐지는 새로운 감각의 결혼 이야기. 모차르트의 걸작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은 유쾌한 희극이지만 결혼이라는 인간 특유의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결혼식을 앞둔 피가로와 수잔나의 설렘과 미래에 대한 우려, 그토록 불타는 사랑을 나누고 결혼했던만 이제는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위기를 맞은 백작 부부의 이야기가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스위스 출신의 연출가 크리스토프 마르탈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아예 이 오페라의 무대를 21세기의 웨딩드레스 쇼룸으로 설정하고 결혼의 '의미와 무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조망했다. 모든 등장인물을 우리 시대에 통용되는 캐릭터로 재창조했으며, 음악적으로는 1988년 이래 자신과 호흡을 맞춰온 배우 겸 음악가 위르크 키엔베르거를 무대 위로 끌어올려 이른바 '레지타티비스트'로서 독특한 묘미를 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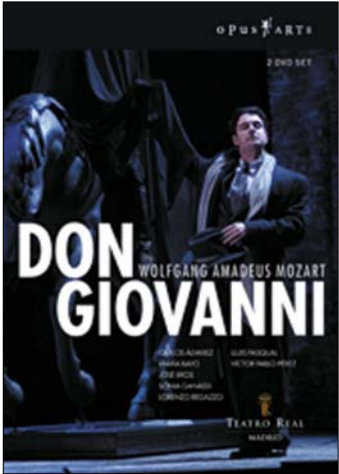
'타고난 피가로' 로렌초 레가초, '오페라계의 매력남' 피터 마테이(백작), 중년의 아름다움을 우아하게 펼쳐낸 크리스티아네 월체(백작부인), 기지 넘치는 수잔나에 잘 어울리는 하이디 그랜트 머피는 물론이고, 특히 험한 바지와 짧은 머리, 질경질경 풍선껌을 씹어대는 요즘 10대의 이미지를 실감나게 연기한 크리스티네 쉐퍼에게는 폭소를 터뜨릴 법하다.

[보충 자료]

○ 스위스 출신의 크리스토프 마르탈러(1951~)은 모차르트같은 천진함과 천재성을 지닌 연출가 겸 음악가로 높은 평판을 누리고 있다. 그는 2001년에 <피가로의 결혼>을 현대적 무대로 옮겨놓은 프로젝트로 뉴욕 타임스를 비롯한 우수 언론의 찬사를 받았으며, 본 영상물은 2006년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파리 오페라에 의해 가르니에 궁에서 펼쳐진 실황이다.

○ '레지타티비스트'로 등장하는 위르크 키엔베르거 역시 스위스 출신이며 배우이자 음악가, 극장 감독으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독특한 인물이다. 그는 전통적인 첼발로 대신 다양한, 또는 기상천외한 현대적 방식을 동원하여 레지타티보의 분위기를 독특하게 이끌어내간다.

○ 비록 공간은 현대의 웨딩드레스 쇼룸으로 고정되었지만 마르탈러는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명쾌한 연기를 펼치도록 지도하여 아귀가 잘 들어맞는 극으로 만들었다. 게다가 효과적인 시점에 백작과 수잔나의 탱고 장면을 삽입하는 등 잔재미조차도 놓치지 않았다. 가수들도 훌륭한 편이지만 본 영상물은 창조적 연출을 보는 재미에 있어서 더욱 탁월하다고 할 것이다.



BBC/Opus Arte
OA 0958 D

모차르트 : 돈 조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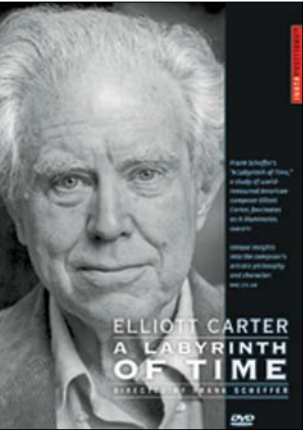
돈 조반니, 1940년대 스페인의 군사독재 시대를 활보하다
〈돈 조반니〉는 원래 17세기 스페인을 배경으로 전설적 바람둥이의 ‘죄와 벌’에 대한 이야기이다. 스페인어로는 ‘돈 후앙’이 된다. 2005년 10월 스페인의 테아트르 레알 마드리드 실황인 본 영상물에서는 그 무대를 1940년대의 스페인으로 옮겨놓았다. 당시는 군부 출신의 프랑코 총통이 스페인 내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이베리아 반도를 군사독재로 통치하기 시작한 암울한 시기. 따라서 대부분의 남성 출연자들은 군복 차림으로 등장하며, 돈나 안나와 돈나 엘비라 역시 시대 분위기를 반영한 어두운 분위기의 의상으로 ‘희극’도 아니고 ‘비극’도 아닌 〈돈 조반니〉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잘 살려냈다. 그런 가운데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이탈리아 라 스칼라 가극장의 무대와 의상 총책임자가 합류하여 ‘어두움 속에서 빛나는 광채’도 드러낸다. 무대도 돋보이지만 더욱 눈에 띄는 것은 라틴계의 현역 최고 스타들로 구성된 드림 출연진이다. 카를로스 알바레스(돈 조반니)와 로렌초 레가초(레포렐로), 마리아 바요(돈나 안나), 소냐 가나시(돈나 엘비라), 마리아 호세 모레노(체를리나), 호세 브로스(돈 오타비오)가 출연하며, 특히 스페인의 리릭 테너 호세 브로스가 격찬을 받았던 실황이다.

[보충 자료]

○ 〈돈 조반니〉는 외면적으로는 오페라 부파의 웃을 입고 있지만 그 줄거리는 물론 음악에 있어서도 희가극의 전형적인 틀을 벗어나는 독특한 작품이다.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보면 레포렐로, 체를리나와 마제토 등 비교적 조연급만이 부파적 인물이고, 돈 조반니는 중립적이며, 돈나 안나, 돈나 엘비라, 돈 오타비오는 부파의 영역을 벗어난 존재들이다. 따라서 1940년대 스페인의 암울한 분위기를 담아낸 루이스 파스칼의 연출은 큰 설득력이 있다. 게다가 이 오페라의 원래 무대가 스페인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상기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이다.

○ 무대 장치와 의상은 테아트르 레알 마드리드와 밀접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 스칼라 극장의 에치오 프리제리오(무대)와 프랑카 스파르치아피노(의상)가 담당했다. 화려한 색감의 묘미를 특기로 하는 무대예술의 대가들이지만 본 공연에서는 암울한 시대상, 그리고 정치적 분위기에 크게 영향 받지 않는 민초들의 다소 유치한 면모까지 절묘하게 담아냈다.

○ 이 공연에서 가장 큰 호평을 받은 호세 브로스는 1990년대 중반에 혜성같이 나타나 현재 유럽 무대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스페인의 벨칸토 테너이다. 서정적 미성과 고음 구사능력을 장기로 한다. 돈나 안나 역의 마리아 바요는 어느새 중견이 되어버린 스페인의 대표적인 리릭소프라노이며, 돈나 엘비라 역의 이탈리아의 메조 소냐 가나시는 그 명성에 비해 영상물이 귀했던 가수이다.



Ideale Audience
DVD9DS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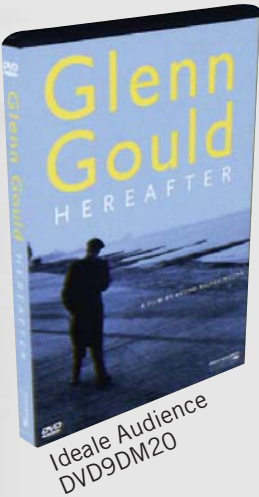
JUXTAPOSITIONS™

엘리엇 카터: 시간의 미로

저명한 미국 현대음악가에 대한 독특한 조명
미국의 현대 작곡가 엘리엇 카터의 인생과 예술철학, 그리고 작품론 등을 프랑크 웨퍼 감독이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통찰한 영상물. 카터는 1908년 뉴욕에서 태어나 2006년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그야말로 현대음악의 한 세기를 온전하게 대표하는 작곡가라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신고전주의로 출발했지만, 1940년대 후반에 그 작품에서 탈피하고, 또 당시 한창 유행하던 12음기법도 거부한 채 폴리메트릭 양식으로 작품을 썼던 작곡가가 카터다. 다니엘 바렌보임, 찰스 로젠, 피에르 볼레즈 등 현 음악계의 거장들이 카터 음악이 지닌 비전을 보여주며, 그가 20세기 음악문화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는지 탐구한다. 2004년 SACEM 상, 골든 프라하 페스티벌 베스트 다큐멘터리 상 수상작으로 거대 도시 뉴욕 전경 등 영상미도 압권이다.

A FILM BY BRUNO MONSAINGEON | 브루노 몽생종 필름

글렌 굴드 HEREAFTER



브루노 몽생종 제작 필름.
2006년 피파 도르상에 빛나는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글렌 굴드의 친구로 그에 관한 저서를 네 권이나 썼던 세계 제일의 글렌 굴드 전문가이며 필름 제작자인 브루노 몽생종의 회심작이다.
연주자의 생애를 그대로 더듬는 평범한 바이오그래피 수준이 아니라
예리한 통찰과 상상력으로 진한 감동을 유도하는 하나의 예술 영상이다.
굴드를 내레이터 역할로 만들었고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동영상이나 사진 컷들을 어마어마하게 실었다. 연주나 인터뷰 장면 외에 해변을 거니는 굴드의 모습이라든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길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광은 정말 꿈결 같다.
이제까지의 글렌 굴드에 관한 자료 중 가장 매혹적인 영상물이다.
2006년 피파(Fipa)상 음악 및 스펙터클 부문 수상작이다. 106분.

NAXOS DIGITAL SERVICES

2005년 그라모폰 올해의 레이블로 선정,
세계 최대 클래식 음반 판매량을 기록하는 **NAXOS**는

방대한 자체 레퍼토리와 유럽 음반사들의 음원들을 더한
클래식 전문 스트리밍 사이트인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와
재즈 전문의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를 선보입니다.

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korea

- 약 11,000개 음반 / 165,000여 트랙의 클래식, 재즈, 월드뮤직 음악 서비스
- Naxos & Marco Polo 전체 레퍼토리와
- Analekta, ARC, Artek, BIS, Bridge Records, CBC, Celestial Harmonies, Collegium, Dacapo, First Edition, Gimell, Hänssler, Morrison Music Trust, PentaTone, Prophone, Proprius, Toccata Classics 레이블의 음악
- 매달 25~30여장의 음반 업데이트
- 오페라 대본, 작곡가, 아티스트 및 작품 해설 등의 유용한 정보제공

낙소스 재즈 라이브러리 www.naxosmusiclibrary.com/jazz

- Naxos Jazz와 Fantasy Jazz등 22개 유럽 재즈 레이블 음악
- 총 1,900여 개 재즈 음반 / 약 20,000 트랙
- 약 500여명 에 이르는 재즈 뮤지션 들의 음악

“거대한 음원의 바다...”

(그라모폰 코리아)

“지금까지 접해본 가장 인상 깊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미국 도서관 저널, 평가 등급 A+)

“시·공간이 절약되는 온라인 콘텐츠”

Sound Quality: CD Quality (128K) / Near-CD Quality (64K)

시범서비스 & 문의

NAXOS KOREA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1-37 이테크빌리 1206호

Tel_02 717 1070 / E-mail_naxoskorea@naxos.com

www.naxoskorea.co.kr



열정적이고 드라마틱한 젊은 시절 아르농쿠르의 명연

모차르트 레퀴엠

연주: 빈 국립 오페라 합창단, 빈 콘센투스 무지쿠스
지휘: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



TDK DVWWW-COMREQ

1981년 11월 1일 오스트리아 빈의 무직페라인 홀 실황.

음원은 이미 텔텍(Teldec)음반으로 출시되었던 기록이기 때문에 잘 알려진 것이다. 아르농쿠르가 연주한 판본은 우리가 흔히 듣는 쥐스마이어의 것이 아니고 독일 음악학자 프란츠 바이어의 것. 바이어 판본은 텍스트추어를 간결하게 하고 음향도 절제해 상당히 금욕적이다. 아르농쿠르는 빈 국립 오페라 합창단, 축소된 원전악기 악단 콘센투스 무지쿠스로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차르트의 정서를 재현해낸다. 로버트 홀의 탁월한 가창, 25년 전 50대 초반의 지휘자 아르농쿠르의 열정적인 지휘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다. 보너스 트랙에는 바흐의 유명 칸타타 BWV161 '오라, 그대 달콤한 죽음의 시간이어'가 들어 있어 감동을 조금 더 연장시킨다. 76분(55분+보너스 트랙 21분)



월간 <아울로스뉴스> 2006년 10월호

통권 제 16호 발행 : 2006년 9월 24일

발행인 : 임용목

출력 : 좋은그림 인쇄 : 투데이아트

발행처 :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 130-110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98-38번지 삼흥빌딩 2층

전화 : 02-922-0100, 팩스 : 02-922-2522

홈페이지 : www.aulosmedia.co.kr

e-mail : aulos@aulosmusic.co.kr

원고 및 광고문의 : 02-922-0100(代)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표지사진 :
엘리자베트 슈바르츠코프